지식인이 바라본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제작

- 영·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중심으로 -

정 대 영 *

1. 머리말
2. 英祖, 正祖연간 전국지리지의 제작과 지식인의 반응
3.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점
4. 맺음말

초록: 조선후기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개선한 새로운 전국지리지를 제작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英祖와 正祖연간의 『輿地圖書』와 잔본으로 남아있는 『海東輿地通載』가 현존한다. 18세기 정부주도로 진행된 전국지리지 제작은 제작과정에 대한 관찬기록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의 기록도 남아있어 주목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英祖, 正祖연간의 전국지리지 제작에 대한 당대 지식인의 반응을 문집, 일기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중앙정부가 실용적 측면에서 지리지제작을 진행한데 반해, 지역 지식인의 경우에는 地域史를 發現하는 場으로 지리지를 인식하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제작의 초기에는 기대감을 나타내다가 후반에 들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人物, 詩文과 같은 항목의 유무에 대한 입장차에서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항목을 추가하여 지리지를 수정해 올리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지역 지식인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18세기를 거치면서 활용에 목적을 둔 官撰地理志와 지역의 史書로서 私撰地理志라는 분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지리지, 황윤석, 여지도서, 영조, 정조, 해동여지통재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壬亂과 胡亂을 거쳐 조선후기에는 여러 차례 전국단위의 관찬지리지가 제작되었다. 肅宗연간에 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속편을 제작하려는 논의(1699년경), 英祖연간의 전국지리지의 결과물로 판단되는 『輿地圖書』(1760년 경)와 『東國文獻備考』에 수록된 「輿地考」(1770년), 正祖의 명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海東輿地通載』(1780년 경), 純祖·憲宗 시기에 제작된 일련의 전국지리지, 高宗연간에 제작된 3차례의 전국지리지(1871, 1895, 1899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이와 같은 시대별 도식은 여러 차례 선학들에 의해 언급된 주지의 사실로 관련 연구 또한 적지 않다.[1)]

최근 들어 시대별 지리지가 정리되고 목록이 공개되고 있어 관련 연구의 편의가 어느 때보다도 향상되고 있는 상태이다.[2)] 하지만 지리지는 개별 지역을 연구하거나 특정 항목만을 발췌하여 연구하는 工具書적인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 지리지를 사료로 이용하는 연구는 증가 추세이나, 지리지 자체에 대한 연구(제작과정 등)는 많지 않다. 조선 전기 주요 지리지에 대해서는 정두희,[3)] 서인원,[4)] 정의성[5)]

---

1) 필자는 조선후기 관찬전국지리지 제작의 기점을 肅宗이 아닌 光海君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611년(광해군 3)에 기존 활자본을 그대로 목판에 간행한 것으로 알려진 목판본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의도적으로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덕형의 8대조인 李集(1327-1387)과 관련된 사항이 수정되고 사유가 붙어 있는 점은 그 동안 크게 주목되지 못한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번역본 『新增東國輿地勝覽』은 광해군대 목판본을 그 저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 시기와의 교감작업이 추후 진행되어 본문의 변화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지리지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구축한 지리지종합정보 사이트(http://kyujanggak.snu.ac.kr/geo)를 들 수 있다.

3) 정두희,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1」, 『歷史學報』 69; 정두희,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2」, 『歷史學報』 70.

4) 서인원, 2000 『東國輿地勝覽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인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硏究』, 혜안.

에 의해 편목, 제작과정 등이 상세히 밝혀진 바가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관찬지리지는 현존하는 방대한 분량에 비해 개별 지리지 각각에 대한 연구가 일단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6] 선학들의 연구 성과에 의해 관찬지리지의 체제, 항목, 소장처 등에 대한 記標에 대한 정보는 풍부해 졌으나, '왜', '어떻게'와 같은 記意에 대한 부분에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사료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리지는 그 분량과 제작기간에 비해 관련 사료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99년에 제작된 관찬전국지리지의 경우에는 『皇城新聞』의 기사만이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제작 관련 사료로 알려져 있다.[7] 영조, 정조 시기의 지리지제작에 대해서는 사정이 좀 더 나은 편이다. 하지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에서 보이는 파편적인 기사로는 제작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지리지를 통해 당시의 정황을 역추적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필자는 당대 관찬 사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의 방향을 동시기 지식인들의 저술에서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정조 시기의 지리지 제작을 평가한 필사본 『杞人閒商量』과 같은 저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8] 또한 지리지 제작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을 일기와 문집, 문서 등에서 일부 찾게 되었다. 정부 측의 사료가 일의 진행을 명령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식인들의 기록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실망, 좌절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

---

5) 정의성, 1996 『東國輿地勝覽의 書誌的 硏究』,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6) 조선후기 관찬 전국지리지 자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배우성, 1996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韓國學報』 22-4; 양진석, 2013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 의 추적」 『규장각』 43; 정대영, 2011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 김태웅, 2013 「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 규장각 43; 정대영, 2016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輿地圖書』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8; 김백철, 2016 「고종대 邑誌의 연대분류 試論」, 규장각 49; 이재두, 2017 「『헌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60.

7) 『皇城新聞』 1899년 4월 26일 기사 '邑誌修上'.

8) 정대영, 2015 「杞人閒商量, 19 세기 초 洪羲祖가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 한국문화 72.

을 주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英祖, 正祖연간 전국지리지 제작과 지식인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英祖, 正祖연간 전국지리지의 제작과 지식인의 반응

英祖연간에 제작된 지리지의 제작은 1760년경 제작된『輿地圖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료들이『輿地圖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이와는 구분되는 1770년대 사료들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輿地圖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연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가 처음으로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된 것은 40여 년에 불과하지만, 사료적 가치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輿地圖書』의 제작을 다룬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진행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순서로 제작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관찬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여지도서』의 제작과정[9)]

연도	주요 내용
1757년	6월 29일- 英祖가 각 邑에서 印出한 邑誌 가운데 이전 수령(前倅)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올리라고 함.
	8월 9일- 洪良漢(浩)의 건의에 따라 8도 읍지를 올려 보냄.
	9월 4일- 英祖가 邑誌를 보고자 하니, 팔도에 印本 읍지가 있다면 그 분량에 구애되지 말고 올리라고 명함.
1758년	12월 23일- 영조가 海西의 읍지 유무를 물어보고 尹東席이 八道邑誌 新件이 홍문관에 있다고 알림. 각도의 읍지가운데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것을 主書에게 베껴 올리도록 함.
1759년	12월 23일- 金應淳이 英祖에게 각도 邑誌를 완성하였으나, 그 본문의 人物항목에 수록된 것이 난잡하여 各道에 명하여 다시금 수정하게 요청하여 왕이 윤허함.
1765년	12월 8일- 英祖가 弘文館에 명하여 輿地圖을 인쇄하여 올리게 하고 각 도의 읍지를 모아서 올리게 함.

9) 배우성, 1996 앞의 논문, 157면; 정대영 2016, 앞의 논문, 401-402면 재인용.

먼저 1758년에 작성된 『新增輿陽誌』에서 丁德輈(생몰년 미상)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 "왕께서 弘文館에 명하여 관문을 내려 읍지를 편찬하여 올리게 하였으나,
> 당시 수령이 없는 사이에 이서배들이 태만하여 거의 못 만들 지경이었다."(후략)[10]

그리고 여지도서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1760년 무렵에는 관찬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일기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黃胤錫(1729-1791)이 1760년 2월 16일에 쓴 일기에는 邑誌를 수정하여 올리라는 명을 듣고, 弘文館의 구체적인 지침을 일기에 기재한 부분이 있다.[11] 황윤석은 영정조 연간의 지리지 제작에 관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일기인 『頤齋亂藁』에서는 읍지의 작성 기준이 되는 표준 제작 지침, 즉 見樣의 기록도 함께 적혀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은 지방에서 수정되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正祖연간에 들어서 黃胤錫은 지리지 제작에 대해 점차 실망의 감정으로 변하는 것이 확인된다. 黃胤錫의 일기에는 趙鎭宅(1746-?)과 지리지 제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기록이 있는데, 趙鎭宅은 정조 연간에 진행되는 『해동여지통재』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같은 해인 1760년 2월 24일 具尙德(1706-1761)의 일기인 『勝聰明錄』에는 輿地

---

10) 『新增輿陽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奎 10804). "昨年冬我(영조33,1757년: 필자주), 聖上欲覽近古卽, 今孝友忠貞之可采, 而不可泯者, 命弘文館發關列邑, 俾纂邑志以進, 而時値空官吏胥輩漫不擧行, 幾乎其後時不及之慮矣."

11) 黃胤錫, 『頤齋亂藁』 1760년 2월 16일 기사 - "聞, 有邑誌改正之報, 馳入邑內宿紅箭門外. 明日安正言戚叔, 方以海西亞使自鄕來到, 直入衙中, 適聞余來, 以主倅語使之入來. 余乃入先問主倅起居, 次問安叔起居, 話間得見巡營關內所感弘文館關辭則, 是乃再到者而, 邑誌凡例目錄, 逐一排定大槩, 以爲前年所修邑誌, 雖據肅廟己卯本草, 而不無猥雜. 今令道臣申飭改正其中人物條云, 只載勝覽所載, 及入書院建祠之人. 其未登聞朝家者, 不敢自下擧論孝子烈婦. 亦以陳聞旌表者載錄, 而未登聞者不能自下擧論云矣. 旋與安叔出次, 鄕廳與大川族兄道彦氏相話. 主倅又出來, 從客移晷而罷, 適逢高君漢璧, 得見叔祖筆跡卽, 肅廟己卯邑誌本草修正時, 以高處士漏落事, 通書于別有司李上舍, 命徵金上舍鳴豪者也."

12) 이재두, 2017 앞의 논문, 261-263면 참조.

勝覺을 수정하라는 下敎에 따라 수정사항을 올린 내용 전체를 일기에 기록하였다.[13] 具尙德이 작성한 내용은 慶尙道 固城지역의 인문, 자연지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山川과 民俗, 人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하는『輿地圖書』의 固城 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표 2〉 具尙德의 일기와『輿地圖書』수록 내용간의 비교

항목명	具尙德의 작성 부분	『輿地圖書』수록 내용
山川	縣東十里有巨流山, 一名流民山. 山本靈異, 故自古有祈雨處, 山頂上有大石, 穹窿若控辰, 極而補天罅者, 恰是一長老儼衣冠而立, 相似謂之老壽巖, 不知自何代, 而得此號也.	流民山, 在縣東十五里. 俗名巨流山, 自碧山來.
坊里	山之下有村曰銀亭里, 民業耕桑, 俗尙禮讓, 而間多有壽考康寧者, 忠孝節義者, 而昔在壬辰之亂, 應募殉國之士, 多出於此山之下.	面 단위만 기재
人物	本里(銀亭里[14])有故主簿仇○○, 卽昌原人, 成均進士○○之子也. 當其倭寇搶攘之日, 晝伏夜行, 而往赴義兵將郭忘憂堂于宜寧世千里陣中, 而累獻殍獲之功, 參錄宣務之卷, 事在都元帥權公慄, 助防將...(생략)...	기재 안됨

具尙德이 느꼈을 실망의 감정은 이후 등장하는 지식인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지리지 제작에 대한 기대로 인해 원고를 작성하였으나, 국가에서 원하는 내용은 통계수치와 자연지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題詠, 人物, 祖上 등 지역색이 강한 자료는 수합과 편집과정에서 수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개개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후기 관찬지리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두되었던 문제점이었다. 국가에서는 과감하게 詩文과 人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리지 제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관련항목을 채워서 중앙에 올려 보냈다.[15] 이러한 누적된 갈등은『輿地圖書』제작 이후 지역색이 강한

13) 具尙德,『勝聰明錄』, 1760년 2월 24일 일기 - "陰雲.是時有輿地勝覽改修正之敎, 故定有司, 收捧應入者, 故自面內, 修正本里事蹟時, 畧曰, 縣東十里有巨流山, 一名流民山.(후략)"

14) 필자주.

15) 중앙에서 내려온 항목체계를 道단위에서 수정한 정황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두,

지리지가 다수 제작되었던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具尙德은 일기에서 내용만을 기록하였기에, 자신의 원고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긴 어렵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李象辰(1710-1772)의 문집인『下枝集』에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이상진은 慶尙道 禮安(현 경상북도 안동)에서 활동한 학자이다. 1756년에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고향으로 귀향하여 학문에 힘썼던 인물로 그가 남긴 글은 귀향한 이후 진행된 지리지 제작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수신자 金正漢(1716-1766)의 생몰년을 살펴보면, 1756-1766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의 순서대로 수록된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와 사직서에는 1. 읍지 편찬의 일로 관아에 가서 선현들의 성명이 포함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지만, 수령의 결재가 난 사항이라 바꿀 수 없었음을 기록한 김정한에게 보내는 편지.[16] 2. 읍지를 제작하는 監營의 節目이 엄격하여 邑誌撰述都監을 사양한다는 글.[17] 3. 本府의 輿地勝覽을 修正하는 곳에 누락된 인물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通文[18]에 관한 내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人物, 詩文에 관련한 항목을 일체 수록하지 않았기에 1, 3번과 같은 학자들의 반응은 여러 차례 확인된다. 이 문집에서 흥미로운 자료는 바로 2번에 해당하는 邑誌撰述都監과 관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지리지 제작을 명령하였을 경우 관아에서 기존 정보를 수합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보게 되면 지방 관아에서 지역 지식인에게 일을 전담시켰던 정황이 확인된다. 황윤석도 이러한 하청구조에 대해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퇴하는 연유를 상세히 기록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다. 후대의 자료이나 1832년 柳徽文(1733-1832)을 邑誌都監에 임명하는 문서는 지리지 제작에 있어 임시기구인 읍지

2017, 앞의 논문에서 상세히 밝혀 놓았다.

16) 李象辰,『下枝集』권3-'與金扶仲'.

17) 李象辰,『下枝集』권4-'辭邑誌撰述都監文'.

18) 李象辰,『下枝集』권4-'通輿地勝覽修正所文'

도감이 지역에 존재했음을 알게 하는 자료이다. 李象辰은 邑誌撰述都監을 사퇴하는 장문의 글에서 여러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監營의 節目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 李光庭을 邑誌에서 삭제한 것에 대한 분노 등을 이야기 하면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지리지의 등재기준이 부적절함을 말하였다. 글의 마지막에는 이런 식의 지리지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監營, 先輩, 父母兄弟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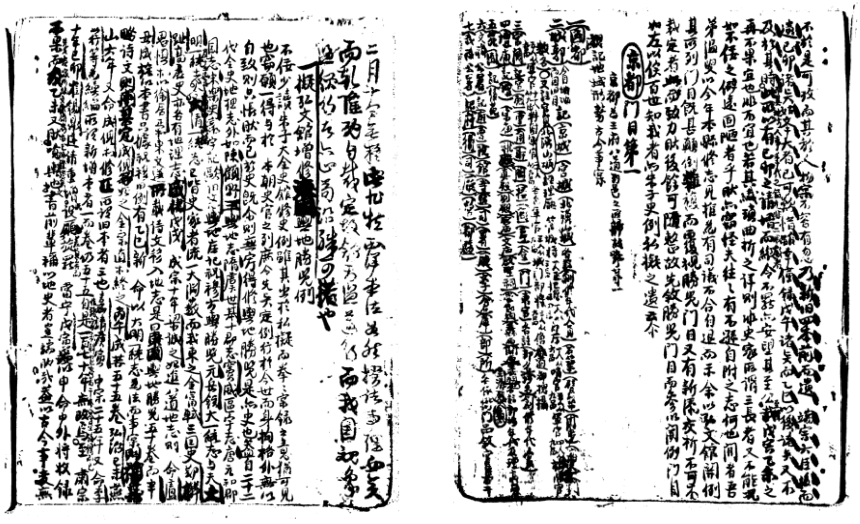
辭邑誌撰述都監文
伏以民向者伏蒙城主下諭即與同任爛熳消詳發
書各院搜取文字費力抄節僅成一冊子遞當袖進
所抄以備從容採問而芽營關節目極爲嚴截雖有
一二變通而尚未能從頭理會民之悶慮不敢參當
實由於此竊念前洗馬李公光庭初無別膺召命
之事亦無畏壘尸祝之所則係是節目之外而營門
特許其追錄營門特許重出於欲其無遺珠之歎則
一鄉先輩之表表可稱固不止於一李洗馬而拘於
爵秩之冗濫限於服食之未遑者獨不爲邑相閒下

府爲差定事邑誌都監良中
差定爲去乎進叱視事向事
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前參奉柳徽文準此
壬辰六月 日
行 首 吉

〈그림 1〉 李象辰의 『下枝集』에 수록된 邑誌撰述都監文 사퇴의 글(좌),
1832년 柳徽文을 읍지도감 임명하는 문서(우)

英祖연간에 제작된 관찬전국지리지는 1760년경의 『輿地圖書』와 1770년의 『東國文獻備考』 「輿地考」가 주로 언급된다. 하지만 1775년(영조 51) 무렵에도 한 차례 전국지리지를 제작하려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黃胤錫은 자신의 일기에서 이 세 차례의 지리지를 모두 실패로 규정하고 지리지 제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일기에 피력하였다. 1775년 10월 1일과 2일의 일기에는 연이어 지리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았는데, 그 가운데 10월 1일은 弘文館의 凡例를 검토하고 실망하면서

기존의 지리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가 이 범례를 수정하여 항목을 재작성하고 일기에 수록한 점이다.[19] 다음날인 10월 2일에는 본 읍의 수령이 지리지 제작 명령을 鄕校에 帖으로 내려 溫弟와 宋君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都給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20]



〈그림 2〉 黃胤錫, 『頤齋亂藁』 1775년 10월 1일 일기에 수록된
'擬弘文館增修東國輿地勝覽例'

주목할 점은 영조연간의 지리지 제작이 후대 지식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800년대 초까지 조선의 지리지 제작을 정리한 글인 洪羲祖의 『杞人閒商量』에는 역대 관찬지리지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영조연간의 지

19) 黃胤錫, 『頤齋亂藁』 1775년 10월 1일 일기 - "當宁戊寅(1758년: 필자주), 爰以申命中外, 將收錄不果 而及. 乙未(1775년: 필자주)又然. 先是庚寅(1770년: 필자주) 所編文獻備考, 亦已踈誤謬矣. 噫! 輿地之書, 前輩稱以地史者, 豈端然哉!"

20) 黃胤錫, 『頤齋亂藁』 1775년 10월 2일 일기 - "得見弘文館啓下關子, 自本道本邑下來者則, 將輯八方邑誌以續勝覽, 而務令簡當. 本倅下帖於鄕校, 以溫弟及宋君復爲修正有司. 已慮鄕中紛亂, 使於新增中孝烈, 非登聞者不許入錄. 又將待中草完役, 乃要余總裁云."

리지는 『東國文獻備考』「輿地考」가 유일하다.[21] 『東國文獻備考』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배포된 지리지가 없었기에 英祖연간의 지리지는 후대에서 그 실체를 접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洪羲祖는 英祖연간의 지리지 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다행히도 英祖46년 庚寅년(영조46, 1770)에 왕께서 명하시어 제작한 『東國文獻備考』가운데 「輿地考」가 가장 상세했는데, 비록 이 책이 '山支', '水泒', '關防', '形勝'으로 항목이 분류되어 있어 각기 분별이 가능하긴 했지만, 본래 한 邑이나 道의 地理志가 아니었으며 馬端臨(12540-1323)의 『文獻通考』의 체제(資)를 따른 것이니 지리지의 온전한 형태와는 차이가 있었다. (후략)"[22]

정조가 1790년을 전후하여 제작을 진행하였던 60권 분량의 『海東輿地通載』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련된 관찬사료 기록과 현존하는 지리지 가운데 殘本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 선학들의 연구를 통해 『海東輿地通載』는 상당부분 전모가 밝혀져 있는 상태이다.[23] 기존 연구에 따르면 『海東輿地通載』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24]

1. 1781년(정조 5) 정조가 『東國文獻備考』의 살펴보고 빠지거나 간략한 것이 많다고 지적하며 『輿地勝覽』에 『海東邑誌』 10여 부를 인출하여 各司에 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25]
2. 1782년(정조 6) 정조가 李萬運에게 『東國文獻備考』 개정을 명한다. 이에 따라 「輿地考」의 내용도 개정이 진행.[26]

---

21) 정대영, 2015 앞의 논문, 484면 참조.

22) 『杞人閒商量』(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청구기호 K2-4176) 제 5면.

23) 『海東輿地通載』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성, 1996 앞의 논문, 양진석, 2013 앞의 논문.

24) 양진석, 2013 앞의 논문, 39-53면에서 재정리하여 인용.

25) 『정조실록』 정조 5년 6월 병술(15일), 敎曰: "禮樂, 刑政, 儀章, 文物, 卽有國所重. 酌古參今, 彙成一統, 爲時王之制爲好. 今觀《文獻備考》, 率多闕略. 《輿地勝覽》 中, 添附《海東邑誌》, 亦不可已矣."

26) 『增補文獻備考』「御製增補文獻備考序」.

3. 1789년(정조 13) 정조가 전국지리지 편찬을 명함.[27)28)]
4. 1790년(정조 14)에 제작한 왕실 도서 목록인 『西庫藏書錄』에 『海東邑誌』 43책이 기록.

正祖의 지리지 제작에 대한 구상은 위에 언급된 1781년 이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弘齋全書』에 수록된 「群書標記」에서는 『南漢志』의 내용이 소략하고 체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하면서 徐命膺에게 내용을 개찬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비록 일개 지역의 지리지에 한정되지만 正祖의 지리지 편찬에 대한 생각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29)]

지식인들의 기록 가운데 『海東輿地通載』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기록은 黃胤錫의 1787년 5월 16일자 일기이다.[30)] 일기에서는 규장각의 關文에 각도 각읍에 명하여 읍지를 수정하여 올리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읍은 옛 읍지를 그대로 謄書해서 올릴 것이라 하였다.

같은 해인 1787년 8월 19일에 황윤석은 趙鎭宅이 八道邑誌의 편찬을 명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31)] 사실 趙鎭宅은 이미 이전부터 正祖의 명에 의해 지리지 범례의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32)] 正祖가 신하들 가운데 유독 趙鎭宅에게

---

27) 尹行恁, 『碩齋日錄』 제 3책, 乙酉年 6월 16일.

28) 『승정원일기』 1659책, 정조 13년 6월 16일자 기사 - "上曰, 海東邑誌, 經紀已久, 而尙未就緖, 故爲其講定, 使之入侍矣.此非數三人所可分掌之事, 而設廳則近於張大, 何以則可得速成耶? (후략)"

29) 『弘齋全書』 권183 「羣書標記」 南漢志항목 - "予於卽阼三年己亥. 謁英陵, 寧陵. 路由南漢. 御西將臺. 行晝操. 周覽城池. 慨念仁孝兩祖之志事. 取見舊傳邑志. 殊蕪雜踈牴. 不可徵信. 遂命守禦使徐命膺就加檃栝. 作爲二編. 凡二十七目. 曰極度. 曰分野. 曰疆域. 曰山川. 曰坊里. 曰田結. 曰堤堰.曰形勝. 曰郡名. 曰城池. 曰宮室. 曰壇廟. 曰陵寢. 曰學校. 曰紀事. 曰營制. 曰軍儲. 曰戶口. 曰物産. 曰賦役. 曰倉廩. 曰經費. 曰驛傳. 曰關防. 曰寺刹. 曰事蹟. 曰題詠."

30) 黃胤錫, 『頤齋亂藁』 1787년 5월 16일 기사 - "聞 奎章閣關文 令各道各邑 更修邑誌上送而本邑只謄舊志云."

31) 黃胤錫, 『頤齋亂藁』 1787년 8월 19일 기사 - "聞 趙仁叔後終歲 奉命編次八道邑誌."

32) 『승정원일기』 1631책, 정조 11년 8월 9일자 기사 - "鎭宅曰, 朱子之極論六弊, 非但當時之急務, 抑亦當今之痼弊, 伏願殿下, 留意於此等之弊, 亟思矯救之道焉.上曰, 所奏好矣.承旨·閣臣, 亦陳文義.秉模·天衡曰, 玉堂已盡文義, 臣等別無所達矣. 上敎鎭宅曰, 邑誌凡例持來乎?

지리지 전체의 범례를 맡긴 것을 볼 때 趙鎭宅의 지리지에 대한 지식을 正祖가 신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趙鎭宅의 문집인 『蓬壺遺稿』와 일기인 『蓬壺日記』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대체로 소략하며 지리지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33] 正祖와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기간 동안에도 그의 일기에는 지리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1787년 9월 4일자 기사에 지리지 제작의 일로 惠民署에 다녀온 사실이 한 줄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34]

趙鎭宅의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黃胤錫은 다음 달인 10월 14일에 趙鎭宅에게 편지를 보내며 지리지 찬수 임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 황윤석은 연이어 10월 27일에도 지리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편지(전하지 못함)[36]와 11월 15일 趙鎭宅의 현황을 기록하고 있다.[37]

『海東輿地通載』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李德懋의 『靑莊館全書』에는 지리지 제작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38] 그는 海東邑誌의 편찬소식을 전하면서도 결과물에 대한 正祖의 실망과 이에 따른 下敎를 함께 기록하였다. 이는 하루 전 날짜의 『承政院日記』, 『內閣日曆』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부분이다.[39] 李德

鎭宅曰, 持來矣. 上曰, 入之. 天衡跪進, 上進覽訖, 下敎曰, 善爲矣. 此凡例, 欲爲下送于各邑耶? 鎭宅曰, 欲爲下送, 而未知如何矣. 上曰, 第依下送, 而其如一詳錄, 何可必也?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33) 『蓬壺日記』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자료가 유일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청구기호 K2-896) 후대 정서본인 이 책이 어떻게 장서각에 소장되었으며 원본의 경위에 관련해서 일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4) 趙鎭宅, 『蓬壺日記』 1787년 9월 4일 기사 - "初四日 赴惠民署卽還, 是時邑誌纂輯役往來."

35) 黃胤錫, 『頤齋亂藁』 1787년 10월 14일 기사 - "四月離全義時先奉書 告以敗歸 兼陳若干說話 竟未承領語 豈或浮沈耶? 長霖跨秋夏 今又孟冬大雷電風雨 而雹雪遠惟侍暇 仕履 與學力俱進否. 或言方被命修八路邑誌 不得私退果否?"

36) 黃胤錫, 『頤齋亂藁』 1787년 10월 27일 기사 - "與趙修撰鎭宅書 近遇去者 付奉起居 托泰仁金典籍光遇甫以呈 想或登覽也 忽此大雪候中 伏惟仕學並溫淸寶衛 令從令公令季令胤乙乙均安否 聞有八路邑志 奉敎編纂之役 其果否乎"

37) 黃胤錫, 『頤齋亂藁』 1787년 11월 15일 기사 - "金典籍光遇應卿答書言 方寓山林洞金先達家與咸平金正郎觀欽同舍 頃見趙修撰仁叔談 余全義之辱 相對歎惋[又言趙仁叔方獨直玉堂修八道邑志右得削書]"

38)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71, 附錄下 6월 17일자 기사.

懋와 正祖의 대화가 있기 며칠 전인 6월 8일과 11일의 일기에서 趙鎭宅은 備邊司 관리의 告目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지리지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서의 이 일은 16일 李德懋의 편찬기록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40] 이 이후로는 趙鎭宅, 李德懋, 黃胤錫의 일기 등에서 『海東輿地通載』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1790년대에는 관찬지리지의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해동여지통재의 제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후 1790년대에는 특별히 증거가 될 만한 사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正祖 말년의 10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지리지 제작이 소원했다는 단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지식인들의 기록은 아니지만 정조연간의 지리지 제작에 관한 사료가 많지 않기에 필자는 1795년에 발급된 '全羅道觀察使陵州雙鳳寺矯弊節目'[41]을 당시 지리지가 제작되었던 정황의 증거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全羅道 綾州 雙鳳寺에는 종이를 제작하여 바치는 役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58개 기관으로 납품되는 종이의 부역이 지나치다는 호소를 통해 각종 잡역을 금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

39) 『承政院日記』 1659책, 정조 13년 6월 16일자 기사 - "上曰, 海東邑誌, 經紀已久, 而尙未就緖, 故爲其講定, 使之入侍矣.此非數三人所可分掌之事, 而設廳則近於張大, 何以則可得速成耶? 鍾秀等曰, 圖籍, 有國之不可無者, 而迄未告成, 誠甚可悶, 設廳之張大, 誠如聖敎.臣等之意, 則廣選典古之人, 使之會萃於藝館, 恐爲便宜矣.命書傳敎曰, 海東邑誌, 卽倣輿地勝覽義例, 爲一部懲信之文獻, 而彙編, 昉自數十年前, 尙無頭緖, 年前會萃有命, 亦至今陶洗無期, 設廳則張大, 一人則孤單, 不可一味任置, 以此意內閣知悉.一提學及檢校直提學句管, 前承旨李家煥·李書九, 較正閣臣及抄啓文臣已減下人及三司中抄出, 分授一道.三南則每道各定二人, 各以分掌之道, 趁卽彙萃陶洗, 送于較正處, 較正處看詳, 送于主管閣臣, 閣臣取捨, 待歸一入啓事, 分付. 人才豈獨在於科臼中人乎? 見於檢書輩抱才空老, 可以反隅, 各道原分掌一人外, 勿拘文蔭, 加定一人事, 分付. 上曰, 邑誌中未能詳錄處, 發關使之改修正以納, 務從纖悉, 可也. 命退, 諸臣以次退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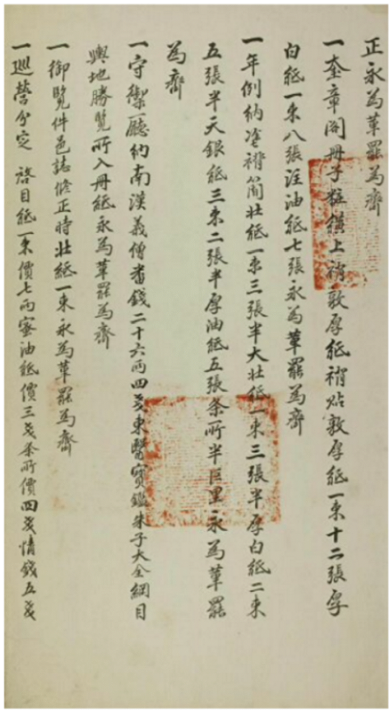
40) 趙鎭宅, 『蓬壺日記』 1789년 6월 8일 기사 - "初八日 備吏告目內, 自上下敎以前校理趙 曾爲文備郞時, 有邑誌修整之命, 如已修整新舊件竝入事舊邑誌則盡爲入啓修整件則以: 1789년 6월 11일 기사 - "十一日 備吏告目內, 自上下敎以趙, 所撰邑誌何在乎? 招問於其時擧行書吏處可也. 徐吏告課政院以爲趙當初承命時, 下送各道件, 各道二邑式先爲修整, 而因事故未卒業. 且陳行會私通等事, 非喪身所敢之由."

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청구기호: 奎 18605.

一 守禦廳納南漢義僧番錢二十六兩四戔東醫寶鑑朱子大全綱目輿地勝覽所入冊紙永爲革罷爲齊

一 御覽件邑誌修正時壯紙一束永爲革罷爲齊

一 巡營分定 啓目紙一束價七兩蜜油紙價三戔條所價四戔情錢五戔負持價七戔五分永爲革罷爲齊



〈그림 3〉 全羅道觀察使陵州雙鳳寺矯弊節目(1795년)에
수록된 어람용 읍지에 사용되는 종이 공급을 혁파한다는 부분

이 교폐절목에 수록된 58항에 달하는 종이제작의 내용이 1795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1790년대에도 관찬전국지리지 제작이 계속되고 있었던 정황으로 연구의 시간대를 좀 더 넓혀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완성으로 끝난 정조시기의 지리지 제작에 대해 1800년대 초 홍희조는『기인한상량』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正祖 말년에는 임금께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增修하고자 하여 奎章閣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각 道의 읍지를 모아들이고, 또한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이 뛰어난 선비를 선발하여 '山川', '樓臺'의 항목을 나누어 주어 고증하고 모아 편집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책이 완성되지 못하고 正祖임금께서 돌아가시니, 뜻있는 선비들에게 슬픔이 되었다.(후략)"[42]

3.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점

조선후기 관찬전국지리지를 비판하는 지식인의 시각은 지리지를 제작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주요 정보만을 취합하려는 중앙정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체제를 따르려 하였기에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타협이 도출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18세기 중반의 지리지제작에 대한 관점은 앞서 살펴 본 黃胤錫, 李象辰, 具尙德과 같이 참여에서 회의적인 반응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뒤 시기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는 지리지제작의 문제점을 지적한 洪義祖, 丁若鏞과 같은 개혁적 시각도 확인되고 있다.

전국단위의 지리지제작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일은 일정한 規式을 통해 전국에 동일한 항목으로 결과물을 수합하는 것이다. 필자는 기존 연구[43]에서 『輿地圖書』에 수록된 313개 고을에 대해 항목을 정리하여 표로 정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첫째, 기본적인 弘文館의 지침과는 다른 추가 항목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 둘째, 항목의 체제가 道단위로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2016년 당시에는 이에 대한 현상의 파악만이 가능했을 뿐 어떤 방식에 의해 道別로 항목의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최근 경상도 지역의 『輿地圖書』 항목을 연구한 이재두의 글[44]이 많은

42) 『杞人閒商量』(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청구기호 K2-4176) 제5면.
43) 정대영, 2016 앞의 논문.
44) 이재두, 2017 앞의 논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弘文館의 항목 이외에 추가된 5개의 항목은 監營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가된 정황이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내려 보낸 항목을 지역 단위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 따른 통일성의 부재가 발생할 수 밖에는 없었다.

〈표 3〉 여지도서의 항목체제와 경상도 지역에서 추가된 항목[45]

홍문관에서 지정한 본래 항목			경상도지역의 자체 추가항목
채색지도	지역개관	재정, 군사관련	
1. 地圖	2.坊里 3.道路 3.建置沿革 4.郡名 4.形勝 5.城池 6.官職 7.山川 7.姓氏 8.風俗 9.壇廟 10.公廨 11.堤堰 12.倉庫 13.物產 14.橋梁 15.驛院 16.牧場 17.關隘 18.烽燧 19.樓亭 20.寺刹 21.古蹟 22.鎭堡 23.人物	24.旱田 25.水田 26.進貢 27.糶糴 28.田稅 29.大同 30.均稅 31.俸廩 32.軍兵	33.學校, 34. 名宦, 35. 題詠, 36. 宮室, 37. 塚墓

경상도지역에서 慶尙監營의 지시에 의해 추가된 항목은 모두 지역의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題詠, 人物 항목으로 인해 조선후기 지리지 제작이 난항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洪義祖가 『杞人閒商量』을 통해 상세히 서술한 바가 있다.[46] 그렇다면 과연 당대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지리지'라는 책은 어떤 것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장에서는 지리지제작에 대한 반응을 보았다면, 그런 반응을 推動시킨 인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이 옳다. 먼저 金宗直(1431-1492)이 지리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살펴보자. 알려진 바와 같이 金宗直은 조선 초기 개인으로서 지리지를 제작한 가장 이른 사례에 해당한다.

"장수가 된 사람은 輿圖를 몰라서는 안 된다. 평상시의 경우는 그만이거니와, 급한 때에 이르러서는 그 山川의 험난하고 평탄함과 道里의 멀고 가까움에 대하여 진실로

45) 정대영, 2016 앞의 논문, 392면; 이재두, 2017 앞의 논문, 256면에서 재인용.
46) 정대영, 2015 앞의 논문 참조.

눈과 마음으로 익혀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方略이 있다 할지라도 베풀 데가 없는 것이다. ...(중략)... 내가 이것을 두렵게 여기어 盛府에 계책을 말하여 畫師를 시켜 경상 일도의 동서남북의 길이를 자세하게 그려서 廳事에 펼쳐 놓았다. (후략)..."[47]

"輿地의 그림이 있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온 것이다. 天下에는 천하의 그림이 있고, 一國에는 일국의 그림이 있으며, 一邑에는 일읍의 그림이 있는 것인데, 邑圖가 守令에게는 매우 절실한 것이다. (후략)..."[48]

위의 두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지도 형태에 지리지의 내용을 수록한 회화 형식이다. 형태는 卷册으로 裝幀된 지리지와 다르긴 하지만, 金宗直이 글을 통해서 지리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활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그는 수령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지리지는 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1601년 許筠(1569-1618)이 鄭逑(1543-1620)에게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면 지리지편찬을 地域史 제작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江陵志』에는 의당 빼 버려야 할 것과 혹 보충시켜야 할 것이 있을 터이니, 全氏가 돌아 올 때에 보내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사실을 기록하는 데는 핵심이 되는 것만을 적되 너무 소략하지 않게 하고 자세히 적더라도 거짓이 없이 해놓아야만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비루한 俗語에서 나왔고 또 나는 역사를 기록하는 재능(史才)이 부족하기에...(후략)"[49]

---

47) 金宗直,『佔畢齋集』 권2 慶尙道地圖誌 - "爲將者, 不可不知輿圖也. 平時則已, 至於倉卒, 其山川險易, 道里遠近, 苟不目慣心熟, 則雖有方略, 無所施矣. (중략) 余爲是懼, 籌于盛府, 命畫師, 寫一道廣輪, 張之廳事.",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에서 재인용.

48) 金宗直,『佔畢齋集』 권2 善山地圖誌 - "輿地之有圖, 古也. 天下有天下之圖, 一國有一國之圖, 一邑有一邑之圖. 而邑圖之於守令, 爲甚切焉.",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에서 재인용.

49) 許筠,『惺所覆瓿稿』 권20 與鄭寒岡 - "江陵志, 當有刊落者, 或添入者, 幸於全子之回, 付示企企. 凡記事, 核而不略, 詳而不誣, 可以傳後也. 此書出於叢俚, 而不佞乏史才.",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에서 재인용.

다수의 지리지를 편찬하였던 鄭逑에게 許筠은 史才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지리지가 지역의 史書라는 인식은 明淸시기 중국의 지리지 연구자들에 의해 생겨난 관념이라고 알려져 있다. 方志學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章學誠(1738-1801)은 지리지를 '지역에 대한 編年體 역사서'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張顯光(1554-1637)이 제자들에게 義城의 지리지인 『聞韶縣誌』를 편찬하도록 권하면서 "地誌를 편찬하여 권하고 징계하는 바가 있게 해야 한다."라는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50] 金宗直이 관료의 입장에서 지리지의 목적을 실용성에 둔 것이라면, 지역의 지식인들은 後代를 위한 역사서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관료와 학자로서 지리지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金堉(1580-1658)은 開京의 지리지인 『松都志』의 跋文에서 "國家의 흥망과 敎化의 득실, 人才의 성쇠, 古今의 풍속을 간략히 기록하였으며, 음풍농월한 시문이나 잡다하고 쓸데없는 말과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빼버리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詩文을 생략하고 爲政者의 입장에서 敎化에 중점을 두어 지리지를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李命培(1672-1736)는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지리지에 대해 기록하면서 "지리지라는 것은 사실을 알게 하는 것으로, 지리지가 없다면 역사가 완성될 수 없다. 지리지는 역사의 주체(體)이며, 역사는 지리지의 활용(用)이 된다."[51]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중국에서 方志學이 戴進과 章學誠에 의해 완성되기 이전에 朝鮮에서도 독자적인 지리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기록이다. 李命培는 자신의 글에서 지리지 속에 지역에 대한 모든 사실이 수록되어야 하며, 先輩들의 상세한 업적이 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구조는 왜 英祖, 正祖연간의 지리지제작에 지역에서 人物과 詩文항목을 그토록 固守하였던가 하는 의문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

50) 張顯光, 『旅軒集』 권9 拜門錄 - "甲戌二月, 來謁于南山, 與諸益語及輿地事. 先生敎曰, 吾東載籍不備, 居在此邦, 不知此邦故事, 可乎? 諸君各撰地誌, 俾有所勸懲, 可矣. 因命余撰聞韶縣誌, 蓋先生嘗宰聞韶, 有意修輯而未就故也.".

51) 李命培, 『茅溪集』 권4 州誌撮畧序 - "州誌撮畧序夫誌者, 識其實也. 無誌不能成史. 誌爲史之體, 史爲誌之用也.".

지역의 지식인들은 人物과 詩文이 수록되지 않는 것을 지역의 역사에 대한 모독으로 인식하였을지 모른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英祖연간인 1768년에 盧尙樞(1746-1829)는 鄕校에서 지리지를 편찬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다. 그는 자신의 선조와 고조가 수록되지 못한 것에 분개하면서 '그들(彼輩)'의 농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하였다.

> "향교에서 돌아오며 지리지가 수정되었음을 전해 들었다. 선조와 고조께서 수록되지 못하였다 한다. 지리지가 수정되어 이미 임금께서 보신 일인데, 한 고을에서 칭송되어야 할 분들이 수록되지 못하였다니! 이것은 그들의 농간인 것이다. 어찌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52]

1760년에 제작된 언양현의 읍지인 『嶲山志』에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음이 확인된다.[53] 중앙정부(弘文館)에서는 人物, 題詠 항목을 제외하라고 요구하였으나, 慶尙監營에서 항목을 추가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이다. 하지만 지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그 많은 인물과 시문을 전부 수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삼감영에서는 수록하는데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서조항 역시 지방의 세력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盧尙樞는 자신의 선조들이 당연히 실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지식인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므로, 慶尙監營은 人物, 詩文 항목을 추가해 주었음에도 조상이 수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지리지제작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인물은 洪羲祖와 丁若鏞이었다. 丁若鏞은 1789년(정조 13)에 正祖의 地理에 대한 策問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고, 洪羲祖는 正祖의 死後에 역대 관찬지리지의 得失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洪羲祖의 『杞人閒商量』에 대

52) 盧尙樞, 『盧尙樞日記』 1768년(영조44) 4월 20일 기사 - "自鄕校來傳方修邑誌, 而櫟亭先祖與祖考竹月公皆不參云, 邑誌之修, 旣是上覽之事, 則一鄕可稱之人, 豈不盡參哉. 此皆彼輩之所弄者矣, 豈不憤惋哉!".

53) 『嶲山志』와 지리지 제작에 대해서는 이재두의 연구에서 상세히 분석하여 밝힌 바 있다.

해서는 선행연구가 있기에 여기에서는 丁若鏞이 언급한 '地理策'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洪羲祖와 丁若鏞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리지제작의 문제점은 본문에 잡다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특히 詩文의 수록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金堉의 경우도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지리지 제작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사고였다. 丁若鏞은 人物과 詩文의 수록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正祖에게 설명하였다.

> "효자나 열녀 등 인물은 행적이 탁월하고 순정하여 온 세상이 모두 아는 바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산삭해 버리고 간략하게 다루며, 題詠詩에 대해서도 1백 수 중에 한 수씩만을 보존하여 그 규례를 엄하게 하여야 합니다."[54]

洪羲祖와 丁若鏞의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는 어떠한 典範을 따라서 지리지를 제작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洪羲祖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이상적인 지리지로 보았던 반면, 丁若鏞은 『大明一統志』와 『水經』, 『水經注』의 체제를 따르면서 沿革을 상세히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결국 丁若鏞이 제시한 답안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후 丁若鏞은 朝鮮의 『水經』인 『大東水經』과 疆域의 沿革을 정리한 『我邦疆域考』를 자신이 저술하게 된다.

4. 맺음말

전국단위의 관찬지리지 제작은 외면상으로 戶籍을 작성하는 과정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전국 330여 군현에 동일한 형태의 項目과 작성방법을 내려주어 일정기한 내에 수합, 정리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지리지 제작의 경우에는

54) 丁若鏞, 『與猶堂全書』 제1집 권8 對策 - "孝烈人物, 非卓絶純正爲一世所共知者, 槪從刪略. 至於題咏之詩, 去百存一, 以嚴規例.".

戶籍과는 달리 개개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조율에 難點이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애초에 項目을 下達할 때부터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人物, 詩文 등을 제외하여 수합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결과 慶尙道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지리지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노력에도 지방 지식인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새로운 지리지의 제작목적에 대한 지식인들의 이해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제작명령을 전해들은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영정조 연간의 지리지를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리지가 지역의 역사를 具現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조상이나 선현의 시문 등이 제외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척점 속에서 18세기 지리지제작은 難航을 거쳐 수합, 편집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현존하는 미완성 지리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英祖, 正祖 연간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지리지제작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응과 그들이 느꼈던 문제점을 文集과 日記자료를 통해 살펴보려 하였다. 지리지 제작사업에 대한 反撥은 18세기 들어 지역에서 刊行한 지리지인 邑誌의 제작이 증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지리지제작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자 하였던 丁若鏞, 洪羲祖와 같은 인물의 등장도 다른 방식의 반응일 것이다. 기존까지 지리지는 연구의 보조 史料로서 주로 활용되어 왔다. 앞으로 지리지라는 문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제작과정과 배경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투고일(2017. 11. 10), 심사일(2017. 12. 11), 게재확정일(2017. 12. 24)

참고문헌

1. 자료

『杞人閒商量』
『蓬壺日記』
『碩齋日錄』
『承政院日記』
『勝聰明錄』
『新增輿陽誌』
『英祖實錄』
『頤齋亂藁』
『正祖實錄』
『增補文獻備考』
『靑莊館全書』
『下枝集』
『弘齋全書』
『皇城新聞』

2. 논저

김백철, 2016「고종대 邑誌의 연대분류 試論」,『규장각』4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태웅, 2013「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규장각』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진석, 2013「18세기말 전국 지리지『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규장각』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재두, 2017「『헌산지』에 실린『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영남학』6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정대영, 2011「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서지학보』38, 한국서지학회.
_____, 2015「杞人閒商量, 19 세기 초 洪羲祖가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한국문화』7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2016「영조연간 전국지리지『輿地圖書』의 서지적 연구」,『서지학연구』68, 서지학회.

Abstract

Intellectuals' Perspectives on Local Gazetteers Produ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during the Reigns of Yŏngjo (1724-1776) and Chŏngjo (1776-1800)

Jung, Daeyoung

In the late Chosŏn, the central government produced local gazetteers that were improved versions of *Sinjŭng Ton'guk Yŏjisŭngnam* (*Newly Edited Local Gazetteers of Korea, 1530*). Among the local gazetteers produced during the reigns of King Yŏngjo (1724-1776) and King Chŏngjo (1776-1800), *Yŏjidosŏ* (*Nationwide Gazetteers with Maps,* circa 1760) and parts of *Haedong Yŏjit'ongjae* (*Nationwide Gazetteers of Korea with Maps*, circa1790) still survive. Beyond the official records, private records made by intellectuals mention the production of these two local gazetteers. This paper examines the reactions of eighteenth-century intellectuals on the production of these local gazetteers based on their diaries and collections of works. The central government ordered intellectuals to produce local gazetteers for practical usage; however, the intellectuals recognized the local gazetteers as potential sources of the history of their regions. Though intellectuals were initially enthusiastic, in the end many were disappointed. This disappointment resulted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on the inclusion of items about historical figures or literary works. The local governments of some regions added items autocratically; however, this could not satisfy all intellectuals. Therefore, intellectuals started to produce local gazetteers meeting their requirements. As a result, from the eighteenth-century, there was a distinct division between local gazetteers produ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practical usage and local gazetteers produced by local intellectuals as historical records.

Key words : Local gazetteers, Yŏngjo, Chŏngjo, *Sinjŭng Ton'guk Yŏjisŭngnam, Yŏjidosŏ, Haedong Yŏjit'ongjae*, Hwang Yunsŏk